

사역자: 모든 성도님들

사역 팀

서로사랑팀: 유익신 집사(682-552-7181) 예 담 팀: 임연성 집사(214-415-6666)
 행정 팀: 하성철 집사(972-522-8421) 재산관리팀: 이교진 집사(214-774-7722)
 예배 팀: 박응철 집사(469-995-5051) 선교 팀: 오병양 집사(940-206-5827)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Pastor)	이근우 목사 (Rev. Geunmoo Lee)	817)888-5405 abundantlife1010@gmail.com
교육/선교/청소년 사역	오희영 목사	817)896-0815
청년/중보기도 사역	유형재 목사	682)558-6115
찬양/미디어 사역	류 석 목사	469)671-6766
유년부 사역	임은영 전도사	469)237-9393
유치부 사역	이정경 전도사	682)552-7209
영아부/유아부 사역	정수옥 전도사	972)809-7492
바나바 사역	이한익 전도사	214)718-8611

목회단상261

"후회 없는 사순절, 후회 없는 삶"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인생을 달관한 현인에게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현인은 먼 하늘과 땅을 바라본 후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네. 독수리의 눈과 예리한 검, 뜨거운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그것일세. 독수리의 눈은 목표를 향한 응시와 넓은 안목을 뜻하며 예리한 검은 과감한 결단을 뜻하지.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후회한다네. 가슴에서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낙천적인 노래가 흘러 넘쳐야 된다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내내 "출생년도와 사망년도 사이의 짧막한 줄표의 인생,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순절이었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워진 경건의 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사순절 이후에도 계속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주님, 제가 많은 것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 제게 주어진 인생, 후회 없이 살다 왔습니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침례자 간증 (Baptism Testimony)

신이나 (Jennifer Shin, 9th Grade)

April 24, 2011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제가 7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빠방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엿보던 중에 오빠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저도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빠를 따라 하느라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무엇 이든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견고해졌고 나의 삶의 방식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계 곳곳에 저보다 훨씬 가난하고 불쌍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학교 안에서 믿는 친구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 클럽(Christian Club)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밤 저와 우리 가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because I've been going to church ever since I was so young, I grew up with the idea that Jesus was real and died for my sins and never really doubted it. However, I don't think it was until the 7th grade that I truly met Jesus Christ and accepted Him as my Lord and Savior. One night, I was walking past my brother's room, getting ready to go to bed. I peeped in to see what he was doing and saw that he was praying. That was the first time I decided to pray before I go to sleep. At first, I was only praying because my brother was doing it but as time passed by, I could feel that I had sort of developed this relationship with God. Soon, I realized that God began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my life and that He was the first one that popped into my mind before I do anything.

Before I really met Jesus, I don't think I was a bad kid or anything like that. After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however, my relationship with God has gotten much stronger and my way of life has changed a bit, too. When life gets tough, I've learned to thank God for what I have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out there that are less fortunate than I am. There isn't a moment of the day when I don't think of God and even at school I try to tell my friends about the good news and remind them to go to church. I've thought about starting a Christian Club at my school so Christians could come together to worship God, pray, and have fellowship even at school. I also try to make sure I do Quiet Time everyday with my Bible and pray to God every night to thank Him for everything He has done for my family and me. I don't think I've changed a whole lot, but I do think I'm working a lot harder now to keep my relationship with God as strong as it can be.

만남, 변화, 행복



THE KOREAN WORLD MISSION BAPTIST CHURCH

